

실버 취업 느는데 고용質은 '뒷걸음'

지난 2000년 이후 광주·전남지역은 65세 이상의 노인 취업자 수는 꾸준히 늘어난 반면 노인들의 취업환경 개선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은 실버 취업박람회 등 노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한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시간제 고용이 느는 등 고용의 질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12일 광주전남통계청이 내놓은 '광주·전남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전남에서 65세 이상의 고령 취업자는 17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6년 전인 2000년(14만5천명)에 비해 22.8%(3만3천명) 증가한 것

광주·전남 취업자 6년새 3만 3,000명 증가 임금근로자 1만 5,000명... 전체 8.5% 그쳐

으로, 같은 기간 노인 인구가 그만큼 폭증하고 각종 기관들이 실버취업에 노력을 기울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광주·전남의 고령자 수는 45만1천595명으로, 6년새 29.4%(10만2천549명) 급증했다.

그러나 고용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임금근로자 비중은 전체 노인 취업자 가운데 8.5%인 1만5천200명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는 급여를 받지 않는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임금근로자여서 고령화시대에

결맞는 '고용의 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의 노인들은 현재의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의 설문 조사 결과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소득이 있는 노인인 각각 63.1%, 66.3%로 집계됐다. 이들 노인 가운데 광주는 소득에 대한 '만족'의 비중이 12.8%에 그친 반면, '불만족'은 49.2%에 달했다. 전남도 '불만족'의 비중이 51.4%로, '만족'(10.5%)

에 비해 5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 광주·전남의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를 가장 큰 애로점으로 꼽았다. 광주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43.0%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문제'(34.6%) ▲'소일거리 없음'(7.6%) ▲'고용 불안정'(4.4%) 등의 순이었다.

한편 광주의 고령자 수는 11만2천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7.8%를 차지했다. 이는 인구중 고령자의 비중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것을 의미한다. 전남은 고령자가 33만8천509명으로 전체의 18.7%를 기록, 고령자 비중이 20% 미만인 '고령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광양제철소 '사랑의 바자'

광양제철소 병연부 햇살나눔회(대표 변정현) 회원들이 최근 광양시 중마동 소재 우리들 병원에서 열린 '환우작품 전시회 및 바자'를 열고 있다. 햇살나눔회는 환우들의 재활기금에 써달라며 500만원의 수익금을 우리들 병원에 전달했다. <광양제철소 제공>

광양제철소 병연부 햇살나눔회(대표 변정현) 회원들이 최근 광양시 중마동 소재 우리들 병원에서 열린 '환우작품 전시회 및 바자'를 열고 있다. 햇살나눔회는 환우들의 재활기금에 써달라며 500만원의 수익금을 우리들 병원에 전달했다. <광양제철소 제공>

광양제철소 코크스 생산 1억t 달성

가동 20년 9개월만에

광양제철소 코크스 공장이 1987년 3월 가동 이후 20년 9개월 만인 12월 코크스 제조 누계 1억t을 달성했다.

이들 광양제철소의 조업기술력을 바탕으로 최단시간 내에 달성한 세계 신기록이며, 1999년 광양제철소 제 5 용광로 증설 이후에도 추가적인 코크스 공장의 증설없이 안정적으로 코크

스를 공급해 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코크스(Cokes)는 밀폐된 로(爐)에 원료를 넣어 섭씨 1천300℃의 고온에서 19시간 정도 건류해 제조되며 쇠를 생산에 필요한 주요 열원으로 이용된다. 코크스 1억t은 15t 덤프트럭을 기준으로 700만대 분량이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아파트 청약에도 지방색 있어요"

호남 '꼼꼼' 영남 '화끈' 서울 '까탈'

'호남지역 청약자는 신중하고 경상도 청약자는 화끈하게 계약하고, 충청도 청약자는 뜬을 들이고, 서울 사람은 까다로우 굴치아 프다?'

지역마다 '지방색'이 있어서, 아파트 청약자들의 성향도 지역마다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국 팔도 분양시장을 누비는 베테랑 분양대행사 사장들을 웃게도 하고 울리기도 한다.

12일 건설업계와 분양 대행업계에 따르면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람은 경상도 청약자들이다. 투박하고 화끈한 경상도 여왕답게 청약자들의 스케일이 크고 비교적 계약도 쉽게 하는 편이다. e 좋은 집 관계자는 "경상도 사람들은 마음에 들면 주저없이 계약하고, 일단 계약을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견본주택에 들리거나 전화로 묻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호남지역의 청약자들은 매우 신중해 분양회사 직원들의 웬만한 '갑언이설'이 안통한다. 지난해 목포 남양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했던 내외주건 정연식 사사는 "이 지역 주민들은 남양신도시에 전남도청 건물을 짓고 있는데도 '와야 들어오는 것'이라며 믿지 않더라"며 "전라도 청약자들에게 웬만한 개발계획을 내놔도 잘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신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보는 사람을 공략하면 의외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강원도 청약자들은 타 지역에 비해 실거주자가 많아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적다. 질문도 시세차의 등 투자까지 보다는 실거주를 가정한 내용이 많은 편.

서울, 수도권 청약자들은 '서울 까탈'이라는 표현답게 까다로운 편이다. 최근 주택시장의 트렌드와 법규 조항은 물론 심지어 시공 기술까지 묻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분양대행사 직원들도 노련하고, 관련 분야 지식도 많은 베테랑급을 배치한다.

분양회사 관계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지역은 충청도다. 급할 것 없이 느긋한 지역 특성상 고객들이 계약을 할때마다 뜬말이 많고 결정을 안해 분양직원들의 애간장을 녹인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전남 중소기업 임금인상률 4.6%

작년보다 1.4%p ↓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올해 임금인상률은 4.6%로 지난해 6.0%에 비해 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회장 염홍섭)가 광주·전남지역 10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올해 임금조정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는 환율하락과 원자재 가격상승, 고유가 등으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와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가 높아졌

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들 업체들은 올해 임금조정 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지불능력(34.0%) ▲타기업 임금수준과 임금조정결과(26.7%) ▲물가상승률(25.5%) ▲노조의 요구(7.4%) ▲기타 개인의 능력(6.4%) 등을 고려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업체의 36.6%가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반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63.4%)들도 '전 직원 실시'(11.5%), '사무직만 실시'(23.1%), '대리 이상 실시'(3.8%) 등으로 구분됐다. /이종태기자 jtle@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원을"

전남 조선산업 발전 워크숍

전남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떠오른 조선산업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업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대한조선을 비롯한 전남지역 조선업체 관계자와 조선학 관련 교수 등 200여명은 12일 영암 현대호텔 1층 컨벤션홀에서 '전남 조선산업 발전 워크숍'을 열고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 성공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조선산

업의 발전 방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워크숍에서는 송하철 목포대 중형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 교수가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업지원 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인화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장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의 효과적 추진전략'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또 김병주 전남도 조선담당관은 전남 조선산업 성과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

"광주은행 분리 매각 힘들 것"

신용평가사 피치 "HSBC, 외환銀 인수 무산" 전망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광주은행의 분리매각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최근 발표한 '한국 은행에 대한 2007년 상반기 실적 및 전망' 보고서에서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이전에 자회사인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의 분리매각은 가능한 시나

리오가 아니다"며 그 근거로 "피인수 은행 뿐 아니라 재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인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피치는 대신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다른 지방은행과의 합병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방은행들이 서울에서의 영업망이 넓지는 않지만, 합병을 통해 전국의 넓은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향후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치는 이와함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HSBC의 우선협상권이 결국 소멸되고 내년 4월 국내의 은행간 인수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HSBC가 지난 9월3일 몬스타와 체결한 우선협상권 소멸시한이 내년 4월말이지만, 그때까지 외환은행 매각 의욕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HSBC의 우선협상권은 소멸되고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던 국민은행과 하나금융지주 등 다른 시중은행에게 다시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피치는 지적했다. /장필수기자 bungy@

광주은행 임원·부점장급 76명 인사

금융 환경 변동 대처 임원, 7명서 4명으로

광주은행은 12일 임원 및 부점장급 76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광주은행은 "마케팅 효율화 및 극대화 화를 꾀하고 경영공백없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매년 2~3월에 실시하던 정기인사를 12월로 앞당겨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박찬진 서울영업본부장, 노관숙 영업1본부장, 한충서 여

신금융본부장 등 부점장 3명과 박병귀 영업2본부장, 김순철 영업3본부장 등 부점장보 2명이 퇴임했다.

광주은행은 대신 조여환·변정섭·정형순·송종욱 등 이시대유 4명을 부행장보로 승진시켜 기존 7명의 임원을 4명으로 줄였다.

또 지역 밀착경영 및 현장중심의 영업력 강화를 위해 광주를 1·2·3 지역본부로 나누고 순천에 전남동부지역본부, 목포에 전남서부지역본부를 두는 등 권역별로 5개 지역본부를 신설했다. /장필수기자 bungy@

고객감동의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 애니체

Anych

사무용 의자, 회의용 의자, 사무용 책상, 회의용 책상

10620942-1814, 1816

국내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특색있는 스펙트럼 조명, 탁월한 조명효율, 탁월한 조명효율, 탁월한 조명효율

고효율의 특허 기술력! 생애 소용 자감 장치 채택

무등산업

10620942-1814, 1816